

■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총평

- 회의명 :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1차 무용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13:00~17: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
-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량원, 김예림, 박성혜, 심정민, 이지현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제1차 무용부문 심의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무용계의 창작산실 역할을 해 온 공공 예술극장으로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정기대관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무용 부문은 사전 서면심의를 거쳐 12월 27일 무용계와 극장 측 전문가 5인에 의한 제1차 대면심의를 진행하였다. 창·제작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기준 지표로 하여 해당 사업과 그 주체의 타당성, 충실도, 실행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1차 심의에서는 105건의 신청 건 중에서 62건을 선정하여 59.1%의 선정률을 보였다.

심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거론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정된 대관 일정으로 인해, 동일한 공연사업의 중복 지원 혹은 기관 및 단체의 여러 건 지원의 경우 겹쳐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 무용계의 주목할 만한 작품을 상당수 포괄하는 축제의 경우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르별 신청 건수에 상응하는 안배를 고려하였으며 신규 진입의 가능성도 우호적으로 열어 놓았다. 기존 레퍼토리를 해당 극장에서 여러 차례 공연한 경우는 지양하는 한편 신작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우선점을 두고자 하였다. 창작산실 등 타 집중 지원의 심의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선정 결과가 미지수인 점과 선정 시 중복 공연 될 점을 고려하였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은 3~12월 대관이 가능하며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은 4~12월 대관이 가능하나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로 말미암아 7~12월만 대관이 가능한데다가 분기별 법적으로 정해진 정기 점검과 안전 검사를 위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대관 가능 일정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정된 대관 일정 내에서 무용과 연극을 비롯하여 다원과 기타 분야에서의 사업을 포괄하여 선정하는 데 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점이 해당 심의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음을 밝힌다.

최근 심의에서는 계획의 구체성과 성실도를 가늠하는 지원 서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는데 이에 부합하여 지원 서류의 전문성이 강화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무용 부문에서는 주요 축제나 동문무용단의 지원 수가 높은 편으로 이는 선정 비율에도 반영되었다. 상대적으로 독립무용가들의 지원율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축제의 경우 무용계 창작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관계로 높은 선정률과 더불어 실제적인 대관 일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상당수의 축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축제의 공연프로그램 전부를 해당 극장에서 수용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타 극장 사용에 대해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진행 과정 중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적절한 리허설 일정을 포함하는 계획이 요구되는 바이다.

심의회원 일동